

SBS 희망TV 2022 세상을 구하는 나눔

우크라이나와 ESG에 초점

메타버스와 NFT 활용 새로운 모금 방법 제시

2022 상반기 <희망TV>가 6월 10일(금), 11일(토) 이틀 동안 9부에 걸쳐 방송됐다.

이번 <희망TV>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조명했다. 전쟁의 참상을 알아보고, 배우 정애리가 직접 폴란드 국경지대에 위치한 난민캠프로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일제강점기에 러시아로 건너가 살아남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이동한 우리 고려인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들어보았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로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공감한 시청자들의 호응으로 생방송 중 5,675건의 정기후원이 접수되었다. 특히 6.25 전쟁고아를 돕기 위해 탄생한 월드비전은 최근 5년간의 그 어떤 모금보다도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관해 이야기했다. 생태학자이자 한국 자연과학계의 대부 최재천 교수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류멸망 시나리오를 얘기했고,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등 지구환경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경각심을 주었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거북이 사체 속엔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제품이 가득하고 멸종 위기인 고래도 피해가 있었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지수 전 세계 2위인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 3위인 낙동강 앞바다의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살펴보고 해양쓰레기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의 열매와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30kg 수거에 만 원' 사업을 설명했다. 방송 중 ARS(1만 원) 후원 전화로 3,644콜을 후원받았고 NFT 발급으로 2,200만 원을 모았다.

이번 <희망TV>에서는 메타버스 'SBS 희망City' 앱을 제작해 SBS와 우크라이나 난민촌 등 현실 공간의 모습을 가상공간에서 구현했고 사랑의 열매와 체리가 함께한 그린 열매 NFT 나눔 캠페인은 10만 원 이상 기부 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기부 증서를 주는 캠페인으로 새로운 모금 방법을 제시했다.

2022 상반기 <희망TV>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통한 모금 금액은 24억 원이다. 이 돈은 월드비전과 사랑의 열매 등에 전달돼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와 환경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SBS, 뉴스 매체 신뢰도 지상파 1위 -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발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한국 뉴스 매체 신뢰도에서 SBS(48.9%)가 보도 전문 채널 YTN(50.75%)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KBS(48.7%), 4위는 JTBC(48.09%)로 나타났다. 조사는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한국의 15개 주요 뉴스 매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5개 언론사의 신뢰도가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한 가운데, 특히 JTBC의 하락폭(-6.77%p)이 제일 컸다. 2021년에는 YTN이 56.4%로 1위, JTBC가 54.86%로 2위, MBC가 52.8%로 3위, KBS가 51.71%로 4위였으며, SBS는 51.22%로 5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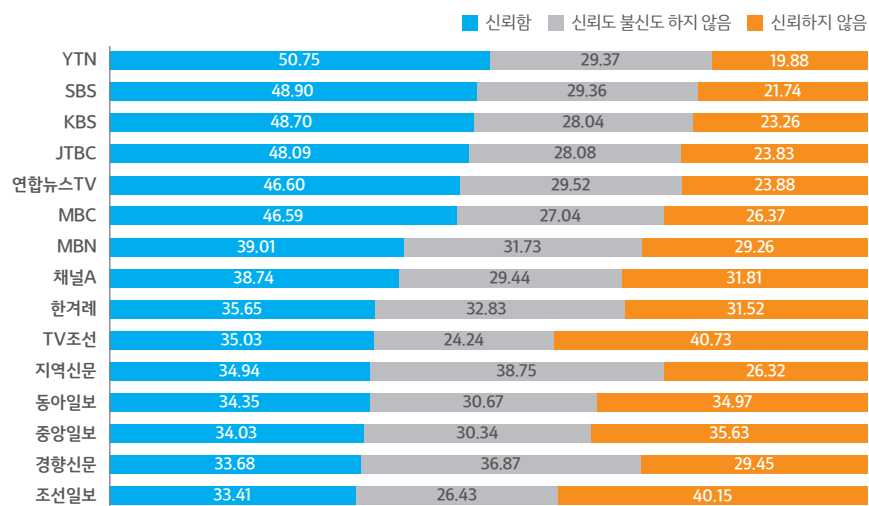
반면, 뉴스 불신도에서는 TV조선(40.73%)과 조선일보(40.15%)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앙일보가 35.63%로 3위, 동아일보가 34.97%로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순위는 조선일보(39.5%)가 1위, TV조선(37.98%)이 2위, 동아일보(34.14%)와 중앙일보(33.67%)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한국은 조사에 참여한 2016년 이후 20% 초반대 신뢰도로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다 지난해 32%로 소폭 상승한 후 다시 떨어져 올해는 46개국 중 40위를 차지했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2’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선택적으로 회피(selective news avoidance)하는 이용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뉴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뉴스 소비는 뉴스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직접 이용하는 정도는 매우 낮은 반면, 포털과 같은 검색엔진 및 뉴스 수집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스 신뢰도가 높은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대조적이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 뉴스 이용자의 디지털 뉴스 이용 및 인식 행태를 주로 다룬다. 올해 보고서에 소개된 설문조사는 영국의 조사업체 유고브(YouGov)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전 세계 93,432명, 한국은 2,02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주요 뉴스 매체에 대한 신뢰(한국)



한국언론진흥재단-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온라인 설문조사 (2022년 1월 11일~2월 21일)



DJ, 작가, 게스트, 기술감독... 더할 나위 없다

- <김영철의 파워FM> 윤의준 PD(라디오센터 라디오2CP소속)

<김영철의 파워FM>은 어떻게 탄생했나?

전임 DJ인 호란이 갑자기 하차한 뒤 당시 PD였던 변정원 선배가 직전 시간대 <편편 투데이>를 진행하던 김영철을 끌어올렸다. 변 선배가 1년 반에 걸쳐 잘 안착시킨 뒤 2018년 3월부터 제가 맡아서 5년째다. 5년씩 맡는 일은 드문데 센터에서 프로그램의 좋은 호흡을 유지하라고 봐주신 것 같다.

처음에 전체 청취율 5~6위에서 현재 3위다. 인기 비결은?

어느 날 고정 게스트 한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스페셜 게스트 체제로 돌렸다. 낮 시간대가 아니므로 가수들보다는 셀럽이나 교양 게스트 중심으로 초대했는데 그게 특집 같은 느낌으로 신선하게 먹힌 것 같다. 물론 고정 게스트들도 뽕뽕하다. 클래식, 경제, 미술, 역사, 음악, 영화, 과학 등 다양한 코너에서 대중에게 많이 소비되지 않았으면서도 내공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있다. 성우 박지윤, 정형석 씨가 영화를 10분으로 축소해서 더빙 식으로 들려주는 코너나 객석식 작가가 과학을 예능스럽게 소개하는 코너 등 특색 있는 코너도 많다. 무엇보다도 남다르게 코너를 만드는 작가의 구성력, 그리고 이 게스트들을 잘 아우르는 김영철 DJ가 진짜 대단하다. 김영철 DJ는 재미는 기본이고 굉장히 성실하다. 주 5일 생방에 '보는 라디오'까지 하느라 의상도 신경 쓰고, 기복 없이 한결 같은 텐션과 컨디션으로 진행한다. 게스트가 오면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모습도 그렇고 기분을 갖춘 성실함이 저희 프로그램이 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스태프는 어떻게 되나?

김윤희, 홍은혜 두 명의 메인 작가와 서브 겸 막내 작가인 황수빈 작가, 이렇게 세 명이 엄청 많은 양의 원고를 열심히 써주고 있다. 오승운 영상감독은 고화질 카메라와 조명으로 고퀄의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다.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다시 듣기도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유튜브를 즐겨 보기 때문에 2년 전에 독자적으로 채널을 개설했다. 얼마 전엔 구독자 10만을 넘겨 실버 버튼을 받았다. 라디오기술팀에서 고정으로 감독을 배정해주셔서 전우진 감독이 1년 넘게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연출하는 것도 척척 받아주고 손발이 잘 맞는다.

라디오PD가 된 계기가 있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라디오를 많이 들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공테이프에 녹음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도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 야간자율학습을 하면서도 몰래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를 들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과 사연,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게 좋았다. 청취자들의 사연을 다루기 때문에, TV보다 라디오가 더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디오는 생방송으로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런 제작방식이 저와 잘 맞는다. 틀에 박힌 게 아니라 그때그때 청취자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게 좋다.

팟캐스트 <말술남녀>도 하고 있다.

처음 라디오센터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분야면서 지상파라디오에서 다룰 수 없는 걸 찾다가 <말술남녀>를 하게 됐다. 술 좀 알고 술 좀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의 갖가지 술을 마시면서 맛과 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5주 치를 한꺼번에 녹음하기 때문에 1주 차부터 5주 차까지 점점 취해가는 정도가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

우선, 김영철 DJ를 비롯해 게스트와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오래 함께해서 합도 잘 맞지만 병이 날 정도로 다들 열심히 해주신다. 지금의 좋은 결과는 그들이 만들어줬다. 그리고 '철가루'라고 불리는 우리 애청자에게도 감사하다. 저는 운이 좋은 PD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 라디오센터는 이제 라디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등 오디오 콘텐츠 제작부서로 거듭나고 있다. 예능이나 교양에서 D스튜디오를 따로 만든 것처럼 라디오도 지원이 된다면, 언젠가 D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라디오 1등 채널인 SBS 라디오에서 최고의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라디오센터 구성원들에게, 회사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우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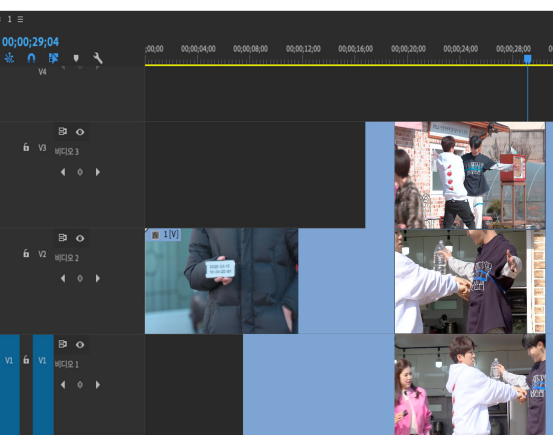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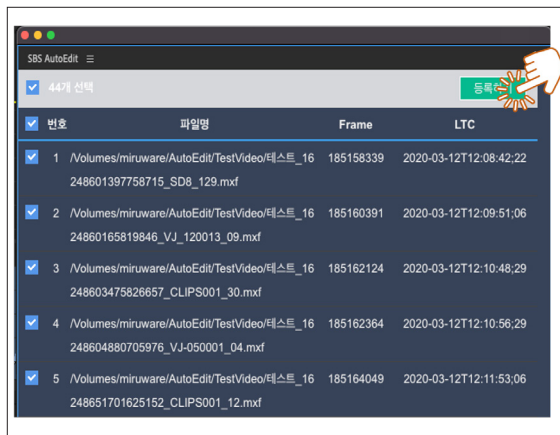
‘편집비서 1.0’ 딥러닝 기술로 제작 편의성 향상

편집기 레이어 자동 쌓기로 시간과 노력 절약



촬영

트랜스코딩



편집기 플러그인

편집기 시퀀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지난 몇 년 동안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제작 편의 향상 방안을 제작진과 협의해 왔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협업의 첫 번째 결과물로 ‘편집비서 1.0’이 탄생했다. 편집비서 1.0은 4월부터 <런닝맨> 팀의 VJ 캠, ENG 캠 및 거치 캠 레이어 쌓기 작업에 적용되어 제작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레이어 쌓는 작업은 편집을 위한 필수 작업이다. 같은 시간에 촬영된 장면이 편집기 타임라인의 같은 시점에 위치하도록 쌓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카메라를 다수 사용하는 제작 환경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비서 1.0은 딥러닝 기반 자동화로 제작진의 노력과 시간을 절약해 준다. 촬영 현장에서 제작진이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을 실행하고 카메라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타임코드 삽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편집비서 1.0은 딥러닝 기술로 촬영 영상 안에 찍혀 있는 타임코드를 스스로 찾아낸다. 또한 찾아낸 타임코드로 영상이 촬영된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한다.

이제 인제스트(트랜스코딩)를 시작하기만 하면, 제작진이 편집비서 1.0을 사용할 준비는 모두 끝난다. 인제스트 완료 후, 제작진은 편집기에서 플러그인을 실행하고 ‘조회’, ‘등록’ 두 번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레이어를 자동으로 쌓을 수 있다.

편집비서 1.0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디어기술연구소는 편집비서 ‘2.0’을 준비하고 있다. 레이어 자동 동기화를 위한 원포인트 솔루션 개발이 1.0의 목표였다면, 2.0은 제작 편의성 향상을 위한 토탈 솔루션 개발이 목표이다. 얼굴인식, 대사생성, 문자인식 등의 딥러닝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편집기에서 제작진이 특정 장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 ‘그알 솔루션 위원회’ 개최



지난 6월 8일(수), 본사 13층 컨퍼런스 룸에서 ‘그알 솔루션 위원회’가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그알 솔루션 위원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통해 제기된 여러 사회적 의제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알 제작진과 관련 시민단체, 입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주고받는 포럼 형식의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는 국회 입법 조사처 허민숙 박사, 국회 여야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윤 보좌관, 국민의힘 권백신 보좌관이 참석했고 최태환 교양국장, 정철원

교양3CP, 한재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장이 함께했다. 모임에서는 올 상반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었던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고, 이후 입법을 위한 공청회나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의제들이 다뤄질 경우 제작진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추가 취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알 솔루션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로 1~2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김명진·김학정 부국장 안식년

보도본부 김명진 부국장, 콘텐츠마스터링팀 김학정 부국장이 7월에 안식년을 맞는다.



김명진 부국장은 1990년 언론사에 발을 들인 뒤 1995년 경력기자로서 SBS에 건너왔으며 뉴스제작1부장, 정책사회부장, 문화과학부장, LA특파원 등을 거쳤다. 그는 ‘무엇인가 답을 구해야 할 때 떠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배’ 중 하나였다. 스스로 욕심을 부릴 만한 순간도 있었지만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 SBS가 3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초석을 다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간다. 지금의 <SBS 뉴스>가 잘하고 있다면 그들 덕분이다. 김명진 부국장이 쌓은 초석도 SBS 뉴스 전면에 있다.



김학정 부국장은 창사와 함께 TV주조정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90년대 후반부터는 종편 업무를 하였다. 이때부터 <이홍렬쇼>를 비롯하여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화려하고 독창적인 영상미를 만들어 냈고 이 공로로 2007년 한국방송프로듀서상을 수상했다. 2013년부터 편집기술팀장을 역임했고 이후 종편업무로 돌아와 <SBS 스페셜>, <모닝 와이드> 등에서 식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어 후배들의 귀감이 됐다. SBS 종편의 산증인인 그는 제주 3개월 살이를 하며 제2의 인생을 계획 중이다.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 스프스뉴스 '가자 네이처돌이', 미디어기술연구소



웹앱콘텐츠 부문 우수상 - 스프스뉴스 '가자 네이처돌이'



특별상 공로상 - SBS미디어기술연구소

스프스뉴스의 친환경 캠페인 '가자 네이처돌이' 시리즈가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웹앱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스프스뉴스 '가자 네이처돌이'는 나무심기 법 개정 촉구 서명 운동 등 친환경 캠페인과 뉴미디어 콘텐츠를 연계해 시청자들이 일상에서 더 쉽게 환경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웹 시리즈라는 평가를 받았다.

SBS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AI) 기반 자막 제작 시스템 및 서비스'로 방송기술상(공로상)을 수상했다. AI 기반 자막 제작 시스템은 기술 수준, 난이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콘텐츠 글로벌 유통 및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성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미디어기술연구소는 2017년 및 2019년에 방송대상 방송기술상을 수상한 바 있어, 방송기술 연구 개발 부문에서 SBS가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상식은 6월 20일(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SBS 미디어넷

MUSIC & LIFE SBS M, 어린이 전문 채널 Kizmom 7월 1일 재론칭

“다종다양한 콘텐츠로 경쟁력 강화”

SBS미디어넷은 오는 7월 1일(금), 뮤직&라이프 채널 SBS M과 어린이 전문 채널 Kizmom을 재론칭한다.

채널명 SBS M의 M은 다양한 음악(Music)과 다채로운(Multiple) 라이프 스타일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MUSIC & LIF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K-POP부터 트로트까지 폭넓은 음악 장르의 콘텐츠와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보이는 뮤직 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다. SBS M은 K-POP 콘텐츠들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르의 음악 콘텐츠를 소개하는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양질의 버라이어티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이다.

Kizmom은 Kiz와 mom이 함께하는 패밀리 타깃 채널이다.

“함께라서 즐거운”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의 삶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공헌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Kizmom은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상상속 즐거움, 홈스쿨링 콘텐츠부터 엄마 대상의 교육, 육아 콘텐츠 등 키즈와 맘이 함께 볼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생생한 즐거움으로 채울 계획이다.

두 채널 모두 TV와 디지털 플랫폼을 융합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 기존의 케이블 혹은 디지털 플랫폼에 알맞은 콘텐츠로 시청자들이 보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BS미디어넷 방송사업본부 이상수 본부장은 “SBS M과 Kizmom이 재론칭해 도약에 나선다”며 “SBS M은 다종다양한 음악과 라이프 스타일의 콘텐츠를 제공해 미디어 시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Kizmom 역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BS미디어넷은 재론칭한 SBS M과 Kizmom을 포함해 SBS FIL, SBS Sports, SBS Golf, SBS Biz, SBS FIL UHD 등 7개의 채널을 운영해 드라마, 예능, 음악, 어린이, 스포츠, 골프, 경제 장르를 아우르는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나게 됐다.

SBS 콘텐츠허브

코핀커뮤니케이션즈와 오리지널 IP 업무협약 체결



(좌)코핀커뮤니케이션즈 유영학 대표 SBS콘텐츠허브 김희진 대표

(주)SBS콘텐츠허브는 웹소설·웹툰 콘텐츠 기업 (주)코핀커뮤니케이션즈와 양사의 핵심 오리지널 IP를 활용한 IP 영상화, 웹소설화, 웹툰화 등의 협력을 포괄한 IP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SBS콘텐츠허브는 이번 협약을 통하여 코핀의 오리지널 웹소설/웹툰 IP(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우선 협상권 등을 바탕으로, 관계사 및 파트너 제작사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영상화(드라마, OTT 오리지널 시리즈, 영화 등)를 추진하게 된다.

웹소설/웹툰에 강점이 있는 코핀커뮤니케이션즈는 SBS콘텐츠허브가 저작권 및 사업권을 갖고 있는 관련 영상 IP의 웹소설화, 웹툰화 등 IP 스토리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규 IP 비즈니스 개발 등의 단계별 협력을 통하여, 웹소설/웹툰/드라마가 결합된 트랜스미디어 IP 유니버스 등 새로운 뉴미디어 콘텐츠 전략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SBS콘텐츠허브 김희진 대표는 “최근 많은 드라마들이 콘텐츠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코핀커뮤니케이션즈와의 협업을 통해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의 다채로운 즐거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용철 아나운서
팀원 역량 강화 특강

아나운서팀은 지난 6월 20일(월) SBS 본사 13층 컨퍼런스룸에서 ‘시청자와 청취자를 위한 전달력 높이기’를 주제로 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강사로 나선 신용철 부국장은 오랜 기간 팀원들의 방송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온 결과와 대학 강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에서 틀리기 쉬운 발음과 잊혀가는 우리말 모음의 고저장단에 대한 내용으로 2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이어갔다.

이 강의를 시작으로 아나운서팀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팀원 재교육을 재개한다.

